

시무(時務)의 연구자, 강덕상(姜德相)의 조선사 연구

이규수*

〈차 례〉

1. 머리말
2. 민족 정체성 회복과 역사 연구
3. 강덕상과 '시무의 역사학'
4. '재일사학'과 남겨진 과제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1931~2021)의 삶의 궤적을 검토했다. 강덕상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특히 근대사 연구의 초석을 쌓았다. 우방협회(友邦協會)를 토대로 한 '조선근대사료연구회(朝鮮近代史料研究會)'의 활동을 비롯, 일본 사회에서 조선사 연구가 갖는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했다. 본인이 말하는 시무(時務)의 역사학자로서의 길이었다.

강덕상의 삶은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온 '격투'의 역사였다. 식민지 시대 황국 소년으로서 강덕상은 조국의 존재가 희미했다. 조선인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본에 충성을 다하도록 강요당한 황국 소년, 강덕상의 모습을 통해, 황민화 정책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강덕상의 방황과 고뇌는 청년기에도 계속되었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그토록 가혹했다.

강덕상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한 것은 '조선인 선언' 이후다. 대학원 진학 이후 강덕상은 근대사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일본에서 조선사 연구의 전국적 학회인 '조선사연구회(朝鮮史研究會)'의 결성에 핵심적 역할을 다했다. 개인 연구 영역 그는 경제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조선의 내재적 발전을 추적했고, 3·1운동 연구에서도 민족대표 논쟁을 통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덕상은 시무의 역사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것은 강덕상의 대표적 연구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로 이어졌다.

*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교수

강덕상은 '재일사학(在日史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제시했다. 강덕상은 일본인이 언급하지 않은 숨겨진 역사의 규명이 '재일사학'의 본령이라고 강조한다. 일본인이 다루지 않은 영역, 일본인이 피하고 싶은 영역을 일본 역사학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일본의 조선 연구가 지닌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강덕상은 일관되게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남북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방향성을 전망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여운형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덕상의 여운형 평전 집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운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만 분단된 한반도의 민족의식의 심리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과 통일은 여운형 사상의 재평가를 통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강덕상은 '시무의 역사학자'로서 온 생애를 비쳤다.

[주제어] 강덕상, 재일사학, 관동대지진, 여운형, 시무의 역사학

1. 머리말

역사가여

너의 역사는 거짓말

우리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사랑의 파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

그런 역사가 알려지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위 시는 해방 직후 제국 일본의 식민지 조선 연구에 대한 한 시인의 항변이다. 1945년까지의 조선사 연구는 식민지 지배 권력과 일본인 연구자의 독점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민지 지식인에게는 연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연구의 방향성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지배 권력의 철

1) 李達憲, 「日本に於ける朝鮮史研究についての所感」, 『歴史学研究』特集号, 1953, 83쪽에서 재인용. 이달현은 기존의 조선사 연구에 대해 “1945년까지 조선 민족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생활 내용인 국토의 역사·문화·풍속을 타민족에게 소개할 기회를 지니지 못했다. 이만큼 조선 민족에게 불행한 일은 없었다. 이를 대변해 답한 것이 과거의 조선 사가(史家)였다. 그 내용은 설령 양심적인 연구일지라도 당시 조선이 받았던 정치적 제약 조건에서 바라보면 항상 거부 정채 반동적 내용을 보였다. 이런 과거의 조선사 연구가 지닌 아쉬운 모습은 앞으로 일본에서의 조선사 연구에 대한 하나의 고민이자 또한 학문적 욕구를 환기하는 조건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李達憲, 같은 논문, 87쪽)

저한 통제 아래 놓여있었다. 연구 내용도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위한 실용적인 산업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조사 연구에는 통치 권력의 별동대로서의 촉탁 등 민간 논객과 낭인이 동원되었다. 이 때문에 패전과 함께 구심점을 상실한 제국 일본의 조선 연구는 괴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 시인의 눈에 비추어져 있듯,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였고,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다.

일본의 조선사 연구 전통이 제국주의 권력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이른바 ‘정체성 사관’, ‘타율성 사관’, ‘일선동조론’ 등으로 상징되는 조선인 부재의 역사관이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동양 평화의 영원한 확보와 유지’ 또는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독립된 역사를 갖지 못하고 문화적으로도 뒤쳐진 조선을 지도하고 ‘문명, 개화’시키는 일이 일본의 의무라며 제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했다. 이것은 일본인 대중이 지닌 왜곡된 조선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물든 어용 지식인은 조선에 대한 왜곡된 역사상을 의도적으로 날조했고, 일반 대중도 이에 편승해 타자에 대한 편견과 멸시의 태도를 증폭시켰다.

해방 이후에도 이런 부조리는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식민지 통치의 필연성과 합리화를 조장하는 논리가 교묘하게 제공되었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감시와 치안 대책으로서 기존 연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패전 이전부터 조선을 체험한 이른바 ‘조사/연구 기술자’는 경찰, 공안조사청, 법무성(출입국관리청), 외무성, 방위청 등에 배속되었다. 일본은 GHQ의 묵인 위에 관변 단체를 만들어 각종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했다. 축적된 정보와 자료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미국 측에도 암암리에 제공되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편견과 차별구조는 냉전을 배경으로 단절되지 못하고 왜곡 재생산되었다.²⁾

2) 대표적인 관변 단체로는 동화협회(1947년 7월), 조선학회(1950년 10월), 우방협회(1952년 10월) 등이 있다. 동화협회는 조선총독부 관료 출신자를 중심으로 귀환자의 권익 옹호, 생활 안정, 사업 재기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952년 6월에는 ‘사단법인 중앙일한협회’로 변경되어 한일교섭에 대한 자료 제공과 재외재산보상운동 등을 전개했다. 조선학회는 나가야마 쇼젠(中山正善)과 구

일본에서의 조선사 연구는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소수의 양심적인 일본 인과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은 민족 정체성을 확신 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를 모색했다.³⁾ 조선 사회의 내재적 발전을 증시하면서 식민지 지배정책의 실상과 민족해방투쟁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식민지 통치 관련 자료의 수집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에는 조선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 사회의 굴절된 조선 인식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과 분단의 책임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일어났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의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 조국의 극심한 사상적 갈등과 한국전쟁의 여파는 재일조선인에게 또 다른 명어로 작동했다. 특히 일본인 연구자와 달리 조선인은 일정한 연구 업적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학계로 진출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조선사 연구는 출발점부터 아카데미즘 영역 밖에서 전개되었다. 재일조선인 연구자들은 식민주의 청산, 냉전과 분단 극복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함께 민족 차별의 극복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경성제국대학’ 관계자들이 덴리대학(天理大學)을 중심으로 조선의 언어, 종교, 문화, 역사를 연구하는 학회로 결성되었다. 우방협회는 호즈미 신로쿠로(徳積真六郎, 전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의 주도로 식민지 통치의 ‘치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목적으로 자료 수집, 정리, 연구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서는 梶村秀樹, 『日本における朝鮮研究』, 『アジア経済』 10-6・7合併號, 1969; 梶村秀樹, 『朝鮮現代史の手引』, 勁草書房, 1981; 이형식, 『패전 후 조선통치관계자의 조선통치사편찬-우방협회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31, 2015 등을 참조.

- 3) 예를 들어 ‘조선역사연구회’라는 재일조선인 단체는 『역사학연구』 1953년 6월호에 ‘역사 연구자 여러분에게’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일본에서는 조선 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바른 조선 역사를 알고 싶다는 일본 국민의 요망이 매우 많다. 우리는 이런 요망에 답해 과학적인 올바른 조선 역사 연구를 깊게 해나가고자 한다. 일본의 과거와 같은 국가 권력의 옹호 아래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역사 연구가 아니라, 어떠한 편견도 품지 않고 더불어 손을 잡고 장래의 평화 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 하나를 쌓고 싶다. 현재 여전히 총독 정치-테라우치·사이토 등의 무단 정치·동화 정치를 구가하고, 토지 조사 사업을 민중을 구한 조선 사회 제도의 대혁신이라는 말하는 논리도 있지만(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저서 『조선 역사 [朝鮮の歴史]』), 이는 정말로 조선 인민을 너무나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래 일본에서의 조선 역사 연구 업적을 더욱 재검토하면서 올바른 조선 역사의 해명에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특히 종래 등한시된 근대와 현대-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조선 인민의 저항·민족 해방 투쟁의 역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는 이상의 취지에 따라 매월 1회 연구 토론회를 통해 연구 활동을 계속해왔는데, 특히 이 특집호 발행을 기회로 일본의 역사 연구자 제현과의 공동 연구를 염원하는 바이다.”(『歴史學研究』 特集号, 1953)

이 글에서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1931~2021)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덕상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특히 근대사 연구의 초석을 쌓았다. 우방협회를 토대로 한 ‘조선근대사료연구회’의 활동을 비롯해 일본 사회에서의 조선사 연구가 갖는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했다. 그것은 본인이 말하는 시무(時務)의 역사학자로서의 길이였다. 여기에서 시무란 ‘시대의 의무’, 다시 말해서 ‘지금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또 강덕상은 ‘재일사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제시한다. 그는 ‘일본인이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역사! 가만히 두고 언급하지 않으려 한 숨겨진 역사!’의 규명이 ‘재일사학’의 본령이라고 강조한다. 일본인이 다루지 않은 영역, 일본인이 피하고 싶어 하는 영역을 일본 역사학계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본의 조선 연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2. 민족 정체성 회복과 역사 연구

강덕상은 1931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지만 1934년 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그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중첩된 시기였다. 일상적인 민족 차별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황민화 교육의 세례를 받았다. 강덕상은 차별로부터의 탈출구로 ‘황국 소년’이 되고자 노력했다. 천황에 충성을 다하는 조선인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면 차별도 없어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황민화 교육이 조선인의 내면세계를 어떻게 뒤틀리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강덕상은 소년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저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면은 조선인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본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릴 때는 빨리 이 조선인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조선을 버리고, 요컨

대 황국의 진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반에 서는 으스스대고 있던 편이지만, 반 친구에 대해서도 황민화, 즉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했어요. 성전 완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맹렬한 소년이었습니다.⁴⁾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던 강덕상의 태도는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은 애절한 ‘바람’이었다. 황민화 교육은 ‘조선인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덕상에게 강요했다. 그러나 숨기고 싶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일상적인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소학교 3학년(1940년) 당시 경험한 창씨개명은 ‘일본이 얼마나 차별 사회인가’를 강덕상에게 각인시켰다. 그것은 모범적인 황국신민을 강요하면서도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일상화하는 천황제 국가 일본의 실체 그 자체였다. 강덕상은 창씨개명의 체험이 이후 역사서술에서 일본 비판의 계기가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이 얼마나 차별 사회인가’라는 것은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조선인이 네 번이나 이름을 바꾸게 된 사실.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에요. 자신을 숨기고 싶다는 생각에서죠. 그런 것이 제 인생 전반기의 역사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일본인이 되어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중에 ‘이건 아니야’라고 깨닫고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⁵⁾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와 생활하게 된 강덕상의 조선에 대한 원체험은 조부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것이 유일했다. 소학교 5학년(1942년) 때 부관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넜던 경험, 부산 세관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고압적인 조사, 일본과는 다른 고향의 풍광, 길을 잃고 헌병에

4)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시무(時務)의 역사학자 강덕상-자이니치로서 일본의 식민지사를 생각한다』, 어문학사, 2021, 29쪽.

5)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9쪽.

게 붙잡혔던 일이 강덕상이 겪어야 했던 조선에 대한 첫 체험이었다. 소년 강덕상에게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냉혹했다. 특히 고향에서 목격한 강제 공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한 달 반 정도 친가에 있었는데 쌀 공출 광경을 보았습니다. 참혹했어요. 순사 서너 명과 면 직원이 들이닥쳤어요. 집에 들어와서 마당 안을 뽀족하게 만든 쇠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겁니다. 땅 밑에 숨기지 않았는지, 묻어두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강제 공출이었어요. 1943년인가 44년의 일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식량이 남아있지 않게 되자 공출이 대단했다고들 말했지요. 그 현장을 눈 앞에서 본 것입니다. 순사가 들이닥쳐 온 집안을 뒤지는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그때의 일이 강제 공출 현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⁶⁾

역사학자 강덕상에게 강제 공출의 현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깨닫는 계기였을 것이다. ‘순사가 들이닥쳐 온 집안을 뒤지는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조선에서의 기억은 강덕상의 역사 인식의 모티브로 작용했다. 한편 조선에 대한 원체험 차이는 강덕상이 다른 재일 역사학자와 구별되는 측면이다. 요컨대 조선에서 성장한 이후, 일본에 건너온 박경식, 강재언 등과는 민족에 대한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강덕상은 조선과 일본의 경계인으로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재일조선인의 모습이었다.⁷⁾

강덕상은 전쟁이 격화되자 공습을 피해 지방으로 피난했다. 1945년 3월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강덕상은 피난처에서 홀로 8·15를 맞이했다. 히로히토의 이른바 ‘옥음 방송’의 내용은 알아듣지 못했다. 비탄에 빠진 일본인과는 달리 피난처에서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만끽했다. 강덕상은

6)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26쪽.

7) 강덕상은 한국 유학생이나 밀항한 재일조선인과의 차이에 대해 “저처럼 일본에서 성장한 조선인은 모국어가 일본어입니다. 당시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조금 많지만 조선에서 자라서 일본에 온 유학생이나 밀항으로 일본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국어가 조선어였고, 조선인으로서의 풍습도 몸에 익숙했습니다. 같은 조선인이라도 저는 그들과 전혀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없는 고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59쪽)고 회고한다.

피난지에서서 집으로 향하는 도중 8·15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리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넓고 캄캄한 거리를 지나 집에 도착하니 이곳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곳만 지도에서 잘라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이 동네 동포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곳은 주변 일대와는 달리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억눌려있던 어떤 것이 한꺼번에 굉음을 내며 뿔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보았다기보다 만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례하던 일장기로 태극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일장기를 부정하고 태극기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자기 회복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⁸⁾

차별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황국 소년이 되고자 노력했던 강덕상에게 조선 민족의 해방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강덕상은 재일조선인의 연이은 귀국행렬, 처음으로 사용한 조선어, 태극기의 발견 등 해방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목격했다. 그것은 스스로 말하듯이 ‘빼앗긴 것을 되찾는 자기 회복의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족을 상실한 재일조선인의 고뇌는 가시지 않았다. 강덕상이 “태극기의 발견! 조선어의 사용! 제 마음 한구석에는 민족으로의 회귀가 시작되었지만, 목표를 상실한 황국 소년의 허무감도 한동안 계속되더군요.”⁹⁾라고 회고하듯이, 해방 이후에도 차별 사회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어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자신과의 격투의 장이었다. 강덕상의 청소년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덕상은 부모의 일본 잔류 결정에 따라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재류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하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은 중국 혁명의 열풍이 일본에 전해지던 격동의 시기였다. 강덕상은 아오

8)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44~45쪽.

9)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46쪽.

야마(青山) 고등학교에 진학해 중국사에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는 히토미 하루오(人見春雄) 선생의 영향이 컸다. 강덕상이 대학에 진학해 중국사를 전공하게 된 것도 그의 영향 때문이었다.¹⁰⁾

와세다(早稻田) 대학 사학과에 진학한 강덕상은 근대사에 관심을 지녔다. 유물사관에 심취하면서 ‘역사학의 큰 발전의 철학’을 배운 덕분이었다. 강덕상은 이 시기 ‘민주주의 과학자 협회’ 와세다 지부에서 유물사관을 접했다. 강덕상은 “역사를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약자 편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죠. 지금까지의 역사라는 것은 전부 지배자, 강자가 만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피지배자에게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지배자가 문자를 점유하고 자기 멋대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피지배자의 시각에서 더 많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는 법,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어요”¹¹⁾라고 회고한다. 강덕상은 대학 시절부터 ‘약자 편에서 바라보는 역사관’, “역사를 피지배자의 시각에서 더 많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실천했다. 대학 1학년 때에는 레드 퍼지 반대 투쟁에 참여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학 후에도 한국전쟁 2주년에 휴전과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사회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강덕상에게 대학 시절은 방향의 연속이었다. 주변 친구들에게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다. 일본식 통명으로 자신을 감추었다.¹²⁾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재일조선인으로

10) 강덕상은 고등학교 시절 역사학에 흥미를 지니게 된 연유에 대해 “이때 담당했던 선생님이 히토미 하루오(人見春雄) 선생님이었어요. 히토미 선생님은 도쿄 대학 ‘18사회(一八史會)’ 출신으로, 1943년에 졸업하고 학도병 경험도 있었지요. 히토미 선생님은 당시에 아직 젊었습니다. 동양사를 담당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고대사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무렵 마침 중국 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때여서 그 흐름에 맞는 형태로 신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편 전쟁부터 침략에 대항한 5·4운동 등을 가르쳤어요. 중국의 내전과 마오쩌둥(毛沢東)의 혁명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업을 통해 당시 중국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53쪽)라고 회고한다.

11)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65~66쪽.

12) 강덕상은 대학 시절 레드 퍼지 반대 투쟁에 함께 참여했던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에게 본명을 숨긴 것에 대해 “그와는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에 대한 배려였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매우 비겁한 거죠. 그 때 제가 이름을 말했다면 그는 자신의 조선에 대한 생각을 말해 주었을 겁니다. 제가 본명을 말하지 않는

서 일본 사회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자신과의 격투의 장이었다. 차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국 소년이 되고자 힘썼던 소년 시절의 체험을 청년기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강덕상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표한 것은 후술하듯이 ‘본명 선언’을 통해서였다.

강덕상은 대학 졸업을 전후해 제일조선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장벽을 체험한다. 조선인으로서 일본 회사에 취업하는 방도는 없었다. 방향의 연속이었다. 강덕상은 대학원 진학의 길을 택했다. 이 무렵 강덕상은 중국사에서 조선사 영역으로 문제 관심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아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와의 만남이었다.¹³⁾ 아마베는 강덕상에게 ‘조선사는 일본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거울이다’며 조선사 연구를 권유했다. 강덕상은 아마베와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마베 선생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을 연구하느냐, 조선인이면 조선을 공부해야지!” 이 말은 제 일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마베 선생은 “조선사는 일본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바람에 그에게서 조선 이야기를 많이 들을 기회를 잃어 버렸습니다.”(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 · 이규수 옮김, 앞의 책, 72쪽)라고 말한다. 고바야시 마사루(1922~71)는 경남 진주에 조선 식민자 2세로 태어났다. 안동, 대구에서 중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16세에 사이타마현(埼玉県) 육군 예과 사관학교, 다음 해에 육군 항공 사관학교에 진학. 일본의 패전으로 제대, 1946년 도립 고등학교에 입학, 20세에 일본 공산당에 입당, 신일본문학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49년 와세다 대학 문학부 러시아 문학과에 전입학, 레드 퍼지 반대 운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고 1951년 퇴학. 1952년 화염병 투쟁으로 현행법 체포, 옥중에서 많은 초고를 썼다. 이후 7년간의 재판 투쟁을 거쳐 1959년, 공무 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로 옥고를 치른다. 1955년, 신일본문학회에 입회하여 이듬해 발표한 『포드 1927년(フォード・1927年)』이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가 되었다. 대표작으로 『족발이(蹄の割れたもの)』, 『만세・메이지 52년(万歳・明治52年)』, 『일본인 중학교(日本人中学校)』 등이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 자신이 원초적인 향수를 이겨내고 해방 후 분단 조선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맺을 것인가를 테마로 삼았다.

- 13) 아마베 겐타로(1905~77)는 도쿄 혼고(本郷) 출생. 뱃부(別府)의 소학교를 졸업. 오사카(大阪)의 마루젠(丸善) 회사에서 일본식 비선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외국어와 사회주의 이론을 배우고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 1921년 오사카의 제1회 메이데이에 참가. 1941년, 일제 검거로 체포되었으나 굴복하지 않아 도쿄 나가노(中野)의 예방구금소에 보내졌다가 1945년에 후쥬(府中) 예방구금소로 이감되었다. 예방구금소에서 김천해(金天海)를 만나 몸을 돌봐주며 조선에 대해 배웠다. 1945년 출옥. 1947년 무렵부터 자료 수집과 연구에 몰두했다. 저서로는 『현대사자료·사회주의운동·전 7책(現代史資料・社会主義運動・全7冊)』(みすず書房, 1964~68), 『일본의 한국병합(日本の韓国併合)』(太平出版社, 1966), 『일본 통치 하의 조선(日本統治下の朝鮮)』(岩波新書, 1971) 등이 있다.

거울이다.”고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흘러들었습니다만, 공부해 나가면서 아미베 선생의 지적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미베 선생을 만난 것은 제가 중국사를 그만두고 조선사를 시작하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중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은 “그러니 너는 조선사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다리를 놓는 그런 중개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⁴⁾

아미베와의 만남을 통해 강덕상은 본격적으로 조선사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강덕상은 와세다 중국연구회에서 조선사 연구 모임을 결성했다. 이 무렵부터 강덕상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었다. 강덕상은 조선사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게 되었다. 이른바 ‘조선인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한 것이다. 강덕상은 조선인 선언에 대해 “스스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숨기고 있어서 좋을 게 없었지요. 본명을 선언하고 나니 안개가 걷힌 듯 맑게 개었습니다. 그 일로 사이가 멀어진 친구도 있었지만, 대신 친한 사람과는 더 친숙해졌어요. 그런 관계가 생겨났지요. 더 빨리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좀처럼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요. 그게 제 청춘에서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그만큼 ‘황민화’ 교육은 인간을 왜곡시켰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¹⁵⁾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강덕상은 식민지 시대의 황국 소년으로서 소년기를 보내고, 민족을 상실한 제일조선인의 고뇌를 온몸으로 겪었다. 조선인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본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강요된 황국 소년, 강덕상의 모습에서 황민화 정책이라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청년기에도 제일조선인의 방향과 고뇌는 계속되었다. 강덕상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었던 차별 사회 속에서 일본식 통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제일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그토록 가혹했다. 강덕상은 조선인 선언을

14)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80쪽.

15)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90쪽.

통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황국 소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었다. 강덕상이 역사가로서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3. 강덕상과 ‘시무의 역사학’

1) ‘조선근대사료연구회’와 조선사 연구

강덕상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특히 근대사 연구의 초석을 쌓았다. 연구의 출발점은 1958년 5월 우방협회를 토대로 결성된 ‘조선근대사료연구회’의 활동이었다. 연구회의 주축은 우방협회 이사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와 강덕상과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를 비롯한 와세다 그룹, 그리고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등의 도쿄 대학 그룹이었다.

연구회는 조선총독부의 제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총독부 관료를 호즈미의 인맥으로 강사로 초빙해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젊은 연구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색적인 연구회였다. 조선 통치의 실태와 공과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가능한 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려는 우방협회와 아직 일본 어느 대학에도 조선 근대사 강좌가 없던 시기에 이 연구를 과외 조선사 세미나로 간주하던 대학원생들과의 ‘동상이몽’ 연구회였다. 500회에 달하는 연구를 개최하고, 그 기록 테이프 200개를 남겼다. ‘공인(公人)’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오컬 히스토리를 일본에서 최초로 다룬 사례이다. 연구회 발족 9개월 후에는 『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제1호를 발행하여 우방협회가 수집한 사료 목록과 함께 연구회 녹취록을 활자화하여 수록했다.

연구회는 유물사관으로 무장한 대학원생과 식민지 관료 사이에 대립과 갈등도 존재했다. 강덕상의 회고에 따르면, “3·1운동이 주제일 때 지바 사도루(千葉了)라는 3·1운동 당시 경성(현 서울)의 경찰부장이었던 사람이 강사로 왔습니다. 경찰관과 경찰의 우두머리였던 자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현장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조선을 위해 좋은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나쁜 짓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식의 말투였지요. 우리는 식민지 지배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선의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에 ‘선의의 악정’이었어요. 그들은 선의로 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악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¹⁶⁾며 연구회의 분위기를 회고한다.

조선사 연구의 전국적 학회인 ‘조선사연구회’는 ‘조선근대사료연구회’를 모체로 해서 1959년 1월에 결성되었다. ‘조선사연구회’의 초기 원동력은 강덕상과 가지무라 그리고 미야타였다. 특히 가지무라와의 인연은 남달랐다. 학문적 동지이자 맹우였다. 이들은 당시 새롭게 알려진 자료인 『통상회찬』을 통해 경제사 연구의 분업을 모색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야마베 겐타로의 연구 방법론을 뛰어넘어 조선사 속에서 역사의 주체인 조선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내재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제창되었다.

강덕상은 당시 가지무라와의 인연에 대해 “저와 가지무라는 『통상회찬』을 어떻게 이용할지 논의하다가 둘이서 분업하기로 했지요. 둘이서 같은 자료로 경쟁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지무라는 생산 관련 연구를, 저는 유통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¹⁷⁾라고 회고한다. 그러나 강덕상의 초기 경제사 연구는 방법론적 한계에 직면한다. 강덕상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저도 화폐의 유통, 화폐론을 연구했습니다. 조선 화폐, 동전이죠. 조선 화폐는 일본 은화에 지배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유통 과정 속에서 근대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은 저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논문을 『역사학연구(歷史學研究)』와 『순다이사학(駿台史學)』 등에 6~7편 발표했어요. 그리

16)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02~103쪽.

17)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27쪽.

고 일본이 1905년을 전후해 실시한 조선 화폐 정리까지 추적했습니다. 저의 화폐론은 일본의 침략, 아마베 겐타로의 역사관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의 책으로 묶어도 내재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폐론이라든지, 자본론이라든지, 도시론이나 상인론 등을 포괄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어요. 가지무리는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단계를 연구하고 그것에 성공하여 내재 사관을 세웠습니다만, 저의 화폐 유통에 관한 연구는 실패한 거죠. 6~7편의 논문을 쓰면서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논문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¹⁸⁾

요컨대 강덕상은 아마베의 연구를 “조선인 측으로부터의 연구가 아니다”라는 비판 위에서 조선의 내재적 발전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지만, 화폐론으로는 내재론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강덕상은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 대상을 고민했다. 그 무렵 강덕상은 제일조선인 선배이자 1세대 연구자인 박경식(朴慶植)을 만나게 되었다. 박경식은 강덕상에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안한다. 그것은 ‘시무(時務)의 역사’라는 영역이었다. 강덕상은 박경식과의 만남과 시무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경식은 그것을 ‘시무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의무’, 즉 ‘지금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렵은 ‘학교 교육 법안’과 ‘외국인 학교 법안’ 등 교육에 관한 법안들이 문제되어 조선인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던 시절이었어요. 외국인 등록법 위반도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였지요. 그때 박경식은 조선대학교 교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에게 “나는 강제 연행 연구를 시무의 역사로 하고 있다. 조선인이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은 스스로 좋아서 온 것이 아니다. 끌려서 왔다. 이는 일본의 국가 책임이다. 그것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땅에서 쫓아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일본의 정책에 의해 끌려왔다.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시무의 역사다. 우리는 일본에 살 권리가 있다.

18)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28쪽.

이를 호소하는 것이 역사가가 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와 함께 하기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드렛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경식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¹⁹⁾

박경식과의 만남은 조선인 선언에 이은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강덕상은 박경식이 말한 역사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시무의 역사다. 우리는 일본에 살 권리가 있다. 이를 호소하는 것이 역사가가 할 일이다’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그의 제안에 따라 강덕상은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모색했다. 여기에서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문제였다.

박경식과의 학문적 교류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두 사람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을 펼친다. 민족대표는 주지하듯이 3·1운동을 준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관여한 인물들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족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전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강덕상은 민족대표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민족대표가 3·1운동에서 수행한 역할은 실제로는 운동의 흐름에 역행했다는 것이다. 강덕상은 민족대표가 대중의 항일투쟁을 기피하고 독립운동의 지도를 포기한 반면, 민중은 많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봉기를 결행했다. 더욱이 민족대표는 사대성·대외의존성·구 봉건귀족에 대한 환상·민중 멸시와 투항주의적인 태도 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투쟁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들은 운동의 주도권 확립을 위한 공명심에서 움직였고, 결국 독립운동의 억제 세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²⁰⁾

이에 대해 박경식은 강덕상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민족대표를 둘러싼 평가

19)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30~131쪽.

20) 姜德相, 「三·一運動における『民族代表』と朝鮮人民」, 『思想』 537, 1969; 姜德相, 「日本の朝鮮支配と三·一運動」, 『岩波講座·世界歴史』 25, 岩波書店, 1970.

는 조선 사회가 당시 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민족대표의 계급적인 제약성 위에서 그들의 의식과 사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민족대표의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폭력주의·평화적 시위운동은 대중적·창조적인 투쟁 형태이고, 운동의 주도력·지도성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자와 종교인의 역할을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불충분한 역사적 사실과 몰역사적 시점에 의한 평가는 단지 허무주의적·교조주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민족대표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¹⁾

당시 이 일련의 논쟁은 ‘박·강 논쟁’이라고 불리며 주목받았다. 이 논쟁은 민족대표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민족운동사의 성격을 둘러싸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강덕상은 이후 3·1운동의 국제성에 주목한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강덕상이 여운형 연구에 매진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강덕상은 박경식과의 논쟁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3·1운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박경식 선생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박·강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박경식은 3·1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대표 33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시대의 제약이라는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전 생애를 보았을 때, 조선 인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3·1운동으로 독립이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역사인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향했습니다. 남은 저는 2명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지요. 3·1운동 직후를 보면 33인을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역사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논쟁은 결말이 나지 않았지요.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는가의 문제겠지요. 3·1운동에 대한 평가는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쿄 간다(神田)의 YMCA에서 이루어진 2·8선언을 중시하여 운동이 도쿄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평가입니

21) 朴慶植, 『三·一獨立運動研究の諸問題』, 『思想』 556, 1970; 朴慶植, 『朝鮮三·一獨立運動』, 平凡社, 1976.

다. 2·8선언은 상하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상하이에서 시작하여 도쿄를 경유한 것이지요.……독립 선언도 중요하지만 파리 강화 회의에 조선 대표가 참석한다는 것,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金奎植)이 파견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국제화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2·8선언이든 3·1운동이든 기존 연구에서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²²⁾

이처럼 강덕상은 ‘조선근대사료연구회’를 거점으로 근대사 연구에 매진했다. 일본에서 조선사 연구의 전국적 학회인 ‘조선사연구회’의 결성에 핵심적 역할을 다했다. 개인 연구 영역으로는 경제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조선의 내재적 발전을 추적했다. 3·1운동 연구에서도 민족대표 논쟁을 통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초기의 경제사 연구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강덕상은 ‘시무의 역사’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일본 각지에 산재한 조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시무의 역사’다, 하나의 자료로 남겨야 한다.”²³⁾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2)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강덕상의 연구 업적 가운데 주목할 것은 장기간에 걸친 자료 수집과 자료집 발간이다. 강덕상이 10여년에 걸쳐 간행한 『현대사자료』는 ‘시무의 역사’의 실천 과정이었다. 강덕상은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GHQ의 반환 문서 가운데 관동대지진의 『공문비고(公文備考)』를 접했다. 강덕상은 ‘먼저 자료를 공개해서 내놓는 것이 논문을 쓰는 것보다 먼저’라는 문제의식에서 자료집 편찬과 연구에 매진했다.²⁴⁾

자료집 간행을 계기로 조선인 학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22)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45~146쪽.

23)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32쪽.

24)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32쪽. 자료집은 총 6권으로 간행되었다. 『現代史資料 朝鮮(1~6)』, みすず書房, 1966~1976.

자료집으로는 강덕상과 금병동(琴秉洞)이 편찬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²⁵⁾과 조선대학교가 편찬한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진상과 실태』²⁶⁾이 간행되었다. 전자는 정부 관계 문서를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망라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집이다. 후자의 자료집은 박경식이 편찬한 것으로 전자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자료가 정리되었다. 학살 현장을 체험한 조선인의 증언도 다수 수록되었다. 이 두 자료집은 재일조선인의 노력과 끈기로 이루어진 진실 규명을 위한 소중한 자료집으로 연구의 기반을 제공했다.

자료집 간행을 계기로 관련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축이 된 연구자는 강덕상이었다. 강덕상은 일련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유언비어의 진원지와 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공헌했다.²⁷⁾ 연구의 진전과 함께 유언비어의 발생 원인을 둘러싼 논쟁도 이루어졌다. 논쟁은 유언비어의 ‘자연 발생설’과 ‘의도적 날조설’로 구별된다.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兌)는 유언비어가 민간에서 자연 발생했다고 주장했고,²⁸⁾ 강덕상은 관헌이 의도적으로 날조 유포했다고 강조했다.²⁹⁾ 마쓰오는 일본인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강덕상은 멀시를 스스로 체화한 일반 민중이 유언비어에 편승하기도 했다는 점과 그 배후인 관헌의 존재를 중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물론 유언비어 전파에 관헌이 수행한 역할을 중시하고, 일반인이 유언비어를 믿고 학살에 가담했다는 점에서는 양자의 주장이 일치한다. 이 논쟁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증할 수 있는 관련 사료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25) 姜徳相・琴秉洞編,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

26) 朝鮮に関する研究資料編集委員会編,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朝鮮に関する研究資料第9集)』, 朝鮮大学校, 1963.

27) 姜徳相, 『大震災下の朝鮮人被害者数の調査』, 『労働運動史研究』 37, 1963; 姜徳相,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実態』, 『歴史学研究』 278, 1963; 姜徳相, 『つくりだされた流言』, 『歴史評論』 157, 1963; 姜徳相, 『關東大震災』, 中公新書, 1975; 姜徳相, 『關東大震災—もう一つの虐殺—習志野騎兵連隊における朝鮮人虐殺』, 『季刊三千里』 23, 1980; 姜徳相, 『新版 關東大震災—虐殺の記憶』, 青丘文化社, 2003.

28) 松尾尊兌, 『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暴動流言に関する二・三の問題』, 『朝鮮研究』 33, 1964.

29) 姜徳相, 『關東大震災下『朝鮮人暴動流言』について』, 『歴史評論』 281, 1973.

관련 연구의 진전과 더불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이른바 ‘3대 테러 사건’의 하나로 바라보려는 시각을 둘러싼 논쟁도 촉발되었다. 이 논쟁은 시오다 쇼베에(塩田庄兵衛)와 이마이 세이이치(今井清一)가 조선인 학살을 가메이도 사건(亀戸事件), 아마카스 사건(甘粕事件)과 동일하게 위치지우는 것에 대한 강덕상의 비판에서 비롯되었다.³⁰⁾ 이 논쟁은 중국인 학살 문제와도 연관되어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강덕상의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관동대진재 시 발생한 3대 학살 사건 또는 다하라 히로시(田原洋)가 주장하는 4대 학살 사건을 병렬시켜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조선인 학살 사건은 민족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사에서는 관동대진재의 조선인 사건, 가메이도 사건, 오스기 사건을 병렬하여 3대 테러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또 일본인 사이에는 동북 지방 사투리를 말하는 사람이 죽었다, 또는 중국인이 죽었다, 오키나와 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일본의 대외 관계 또는 아시아인 차별의 문제로서 이런 사건을 배외주의 일반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에 반대한다. 이는 시야를 역사적으로 확장시키는 일이 아니다. 하나 하나의 사건은 그 본질이 다르다. 조선인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립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의의와 사실을 손상시키고 관헌의 은폐 공작과 한 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오스기 사건, 가메이도 사건은 관헌에 의한 권력 범죄, 밀설 범죄, 일본 민족 내부의 계급 문제이다. 이에 반해 조선인 사건은 관민 일체의 더욱이 일반 민중이 가담한 민족 범죄이다. 그리고 일본인의 일부, 중국인, 오키나와인의 문제는 일본과 조선과의 모순에 의해 일어난 파생적인 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일본의 배외 내셔널리즘의 희생이 된 사건이었다. 이것들을 결코 동일하게 논해서는 안 된다.³¹⁾

30) 이에 대해서는 塩田庄兵衛, 『関東大震災と亀戸事件』, 『歴史評論』 158, 1963; 今井清一, 『大震災下の諸事件の位置づけ』, 『労働運動史研究』 37, 1963; 松尾章一, 『関東大震災の歴史研究の成果と課題』, 『法政大学多摩論集』 9, 1993; 姜徳相, 『三大テロ史観について』,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関東大震災70周年記念集會の記録』, 日本經濟評論社, 1994 등을 참조.

31) 강덕상,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일본 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 1999.

강덕상은 조선인 학살의 성격을 명료하게 지적했다. 즉, “조선인 학살은 일본 관민 일체의 범죄이고, 민중이 동원되어 직접 학살에 가담한 민족적 범죄이자 국제 문제”라며 다른 사건들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덕상은 관동대지진 당시 왜 계엄령이 공포되고 군대가 출동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행위를 조선의 민족 해방 투쟁사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선인 학살은 계엄령 아래 자행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조선인 학살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이해될 수 없으며, 동시에 조선 민중의 해방 투쟁과 분리해서는 그 연구를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학살과 식민지 지배, 민족 해방 투쟁의 고양은 명확한 인과 관계로 연결된다.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 사건은 1905년 이후의 식민지 지배와 이를 보완한 일본 민중이 강력한 적, 조선 민중을 두려워한 것에서 발생한 집단 살인이고, 민족 범죄였다. 한일 간의 부조리한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돌출한 또 하나의 잔혹한 사건이었다.

특히 강덕상은 계엄령 발포에 주목했다. 계엄령이란 내란 또는 전쟁 때 발령되는 것이다. 강덕상은 ‘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계엄령이 발령되었고, 내란을 일으킨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강덕상은 ‘계엄령은 조선인에 대한 선전 포고’라며 조선인 학살 문제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관동대지진 당시 왜 계엄령이 내려졌는지를 생각할 때, 학살 사건의 전제로서 30년에 걸친 전사, 즉 갑오 농민군과의 전쟁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강점에 반대하여 전국을 선혈로 물들였던 7년에 걸친 의병 전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런 전쟁을 체험하면서 조선에 대한 ‘적시(敵視) 사상을 형성해 왔습니다.……관동대지진 당시의 학살은 우연히 일어난 조선 민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하는 침략과 저항이 만들어낸 민족 대결입니다. 이것이 ‘위법’적인 계엄령 발포의 진상입니다. 계엄령은 조선인에

대한 몰살 선언과도 같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는 1923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전부터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벌인 일본의 선전 포고 없는 한일 간의 전쟁입니다. 갑오농민전쟁과 의병 전쟁의 연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살이었습니다.³²⁾

강덕상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는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념비적 업적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명해야 할 영역은 여전히 많다. 강덕상도 강조하듯이 무엇보다 희생자 조사 연구는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정확한 희생자 통계도 불분명하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조선인 희생자를 조사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동아시아라는 화두에 편승해 학살을 둘러싼 한·중·일 공동 심포지엄 등이 자주 열릴 것이다. 관동대지진이라는 동일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학살이었기 때문에 중국인을 포함한 연구 시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조선인과 중국인 학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면 학살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경향은 강덕상이 강조한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한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선인 학살 문제는 일본인과 중국인 학살 문제와 달리 식민지 지배의 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여운형 연구와 민족 통일

강덕상이 추구한 ‘시무의 역사’의 결정관은 여운형 연구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해방 정국 당시 남북 합작과 좌우 합작을 주장하던 여운형은 그로 인해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다. 여운형은 남북 분단과 좌우 갈등 속에서 그동안 독립운동사 분야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다. 관련 연구도 미진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덕상의 여운형 연구는 여운형의 전체상, 특히 해방 이

32)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226~233쪽.

전의 활동에 집중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여운형 연구 현황에 대한 엄정한 평가 위에서 독립운동사 분야에서의 여운형이라는 시점을 강조했다.³³⁾

강덕상은 여운형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여운형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대와 깊숙이 결부된 인물이라 강조한다. 여운형은 결과적으로 민족 통일에서 유일무이한 빛나는 별과도 같은 존재이고, 남북이 여운형의 투쟁의 역사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강덕상은 여운형 평전을 통해 ‘민족의식의 심리적 통일’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³⁴⁾

강덕상의 평전은 여운형의 생애를 실증적으로 복원한 역작으로, 인물 평전 이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사 연구서이다. 평전의 집필을 위해 강덕상은 관련 자료의 방대한 수집과 치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지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분야는 ‘불령선인’으로 간주된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였다. 강덕상은 일찍이 관련 사료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1940년대 해방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여운형이었다고 회고한다. 여운형 평전은 강덕상의 평생 연구 주제이자 자료 수집과 연구라는 ‘시무의 역사’의 실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강덕상의 여운형 연구의 최대 의의 가운데 하나는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

33) 『여운형 평전(呂運亨評傳)』(1~4)의 1권은 2002년 6월, 2권은 2005년 1월, 3권은 2018년 11월, 4권은 2019년 6월에 간행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평전 완간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평전은 원래 3권 23장 구성이었지만, 4권 26장으로 최종 편집되었다. 후기에 따르면 이미 완성된 초고에 별도로 추가된 내용은 없다. 장절 체제의 재구성에 따른 것이었다. 평전은 1권 413쪽, 2권 566쪽, 3권 389쪽, 4권 320쪽, 합계 1,688쪽에 이른다. 단일 인물 평전으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일 것이다.

34) 강덕상은 여운형이 잊혀진 까닭에 대해 “왜 일본은 그렇게도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규제하면서 여운형의 동향 하나하나에 강한 관심을 보였을까? 왜 여운형처럼 해방 세력이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한 연구가 없었을까? 그리고 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여운형은 숨겨지고 그에 대해 제대로 말해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해방 후 조선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국은 친미파로 돌아서면서, 과거에 친일파였고, 자국민이 걸어온 역사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나간 정치 지배자 이승만, 그리고 그를 이은 박정희의 군사 정권이 분단국가 한국의 지배자로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여운형에 대한 평가는 한국 정치 상황과 연관되어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북반부는 구소련 독재 국가가 되었고, 민족 해방 운동은 김일성 개인으로 일원화되면서 그 다양성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렇듯 남북한 역사에서 여운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238~239쪽)라고 말하고 있다.

운형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정당하게 복원한 독립운동사론이라는 점이다. 강덕상도 강조하듯이 그것은 ‘분단이 만들어낸 허구의 역사인식’³⁵⁾을 바로잡는 작업이자, ‘생애의 실증적 복원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사와의 관련에서 재조명하는 또 하나의 앵글’³⁶⁾이었다. 여운형에 대한 정치적인 복권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여운형의 삶의 궤적이 비로소 복원된 것이다.

강덕상은 왜 여운형 연구에 매진했을까. 강덕상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을 처음 접한 것은 중학생 무렵인 15살이었다. 1947년 7월 여운형의 암살 직후 당시 일본에서 활약하던 김달수(金達壽)의 “혁명 도상에 있는 우리 조선에게 더 이상의 손실이 있을까”³⁷⁾로 시작하는 글을 접하고 나서라고 한다. 당시 청소년인 강덕상에게 여운형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인물이었다.

강덕상은 역사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여운형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다. 독립운동 관련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 편찬하면서 김달수가 말하는 민족적인 ‘손실’의 의미를 찾아 나섰다. 강덕상의 말대로 여운형은 수많은 기라성파도 같은 독립운동가 군상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일등 별’이었기 때문이다.

강덕상의 여운형 ‘찾아 나서기’는 독립운동사의 복원 과정의 일환이었다. 강덕상은 평전 집필 이전에 『조선독립운동의 군상』³⁸⁾을 간행했다. 이 책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3·1운동에 걸쳐 활약한 9명의 일대기를 정리한 것이다. 강덕상은 이 책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운형 연구에 매진한 강덕상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오늘날 분열된 조국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을 펼치지 않았다. 지금 조국의 현상을 가장 슬퍼하는 자들은 이들이다. 분열된 상태의 조국은 진정한 독립 국가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통일을 추구하는 하나의 정신적 식량으로 삼으면 좋겠다. 우리는 해방 후 벌써 40년간 분열의 시대를 살았

35) 姜德相, 『呂運亨評傳 (1)朝鮮三・一獨立運動』, 新幹社, 2002, 7쪽.

36) 姜德相, 앞의 책(新幹社, 2002), 8쪽.

37) 金達壽, 『呂運亨先生の生涯(上)』, 『民主朝鮮』 1947년 8월호, 24쪽.

38) 姜德相, 『朝鮮獨立運動の群像—啓蒙運動から三・一運動へ』, 青木書店, 1984.

다. 그 이름은 또한 통일 시대를 향한 진통이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러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나 또한 이 책을 1920년대로 끝마치고 싶지 않다. 진정으로 독립한 조선을 추구한 사람들을 속편으로 써나가야 한다. 박은식의 표현 방식으로 말하자면 광복사와 통일이사가 있어야 비로소 완결된다. 앞으로 30년대, 40년대, 독립과 통일을 바라며 조국과 민족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계속 그려 나갈 것이다. 통일 없이 우리 민족은 살아나갈 수 없다.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³⁹⁾

강덕상은 ‘통일 없이 우리 민족은 살아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진정으로 독립한 조선을 추구한 사람들’ 가운데 여운형을 꼽았다. 강덕상은 여운형을 세계를 무대로 ‘조선의 독립에 인생을 건 운동가’, ‘식민지기 중국 상하이를 기점으로 항일독립운동을 가열차게 추진한 운동가’의 표상으로 그려냈다.

강덕상의 여운형 평전 집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운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만 분단된 한반도의 민족의식의 심리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과 통일은 여운형 사상의 재평가를 통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강덕상은 평소 강만길의 ‘분단 시대’라는 역사 인식에 깊이 공감했다. 남과 북에서 여운형 연구가 미진한 원인은 민족 분단 때문이라 진단했다.⁴⁰⁾

강덕상은 평전 후기에서 “민족 독립에 대한 수많은 이합집산적 경험의 문을 열어보고 발견한 것은, 문 너머에 잠자고 있는 것은 계급을 초월한 우리들의 공통의 보물, 민족이었다. 계급을 넘은 민족의 발견이란 무엇인가.…… 조선사의 현재는 아직 ‘광복’이 되지 않은 ‘분단 시대’이다. 이를 극복하고 나서 비로소 광복 즉 독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통사’, ‘혈사’의 시대를

39) 姜德相, 앞의 책(靑木書店, 1984), 255쪽.

40) 강덕상은 강만길의 역사 인식을 공유했다. 강덕상은 “강만길 선생이 말했듯이, 한반도의 당면 문제는 분단일 것입니다. 분단의 역사를 통일로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큰 흐름 속에서 역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과 전혀 상관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상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사상이 없는 역사의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220쪽)라고 ‘분단 시대의 역사 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여운형 평전이라는 이름을 빌어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세계사의 대국 속에서 독립운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잃어버린 사실을 기록하고자 했다.”⁴¹⁾고 말했다.

강덕상은 평전을 통해 일관되게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여운형을 통해 남북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방향성을 전망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강점 이후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각지로 망명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조국 광복을 위해 스스로를 헌신했다. 각 세력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여운형의 신한청년당 창당도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였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강덕상은 여운형을 매개로 한 신한청년당의 활동을 중시하지 않고서는 율슨에게 보낸 독립 청원문이나 도쿄 유학생의 2·8독립선언 나아가 국내의 독립선언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 세력은 각자 거주하는 국가와 지역이 달랐고, 출신 성분이나 이념 사상에도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운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민족이라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했다. 여운형의 역사적 평가는 민족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덕상은 평전 집필을 시작하며 ‘연구 대상과의 거리’⁴²⁾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는 나중에 보면 필연의 연쇄이겠지만, 시대의 분기점이나 각 운동이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의 선택사항이 있다. 강덕상은 여운형이 선택한 길은 적어도 해방까지는 틀리지 않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민족의 운명을 개척한 인물이었음을 논파했다. 여운형 연구의 최고 가치는 민족분단 극복을 위한 공통 자산의 발견이라는 것이다.

41) 姜德相, 『呂運亨評傳 (4)日帝末期暗黒時代の灯として』, 新幹社, 2019, 318~319쪽.

42) 姜德相, 『呂運亨評傳 (1)朝鮮三・一獨立運動』, 新幹社, 2002, 9쪽.

4. ‘재일사학’과 남겨진 과제

강덕상은 말년에 ‘재일사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제창한다. 이는 ‘시무의 역사학’이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강덕상은 ‘사상이 없는 역사의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조선근대사료 연구회’와 ‘조선사연구회’의 결성 당시부터 지녀온 강덕상의 역사의식이었다. 강덕상은 최근 일본의 조선사 연구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일본의 조선사 연구회는 여러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남, 북한 문제나 조선 민족의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의 지방사를 연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런 연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지역의 혼례 방식이 어떻다 같은 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의 현재 상황, 분단과 통일의 흐름과 같은 문제를 빼놓고 찬합구석을 이쑤시개로 후비는 것과 같은 연구를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젊은 연구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제대로 조언해 줄 어른도 없습니다.⁴³⁾

강덕상은 연구 대상의 확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역사 연구에서 ‘남, 북한 문제나 조선 민족의 문제’, ‘한반도의 현재 상황, 분단과 통일의 흐름과 같은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애써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강덕상은 일본의 조선사 연구 경향에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일까. 이는 재일조선인으로서 역사 연구에 몸담은 강덕상의 인생 역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강덕상은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식민지 시대 연구에 제약이 따랐던 상황에서 재일조선인이 역사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강덕상에게 ‘시무의 역사’는 한국 역사학계와 일본 역사학계가 주목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였다. 일본 사회가 눈감고 부정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일본 사회에 근원적인

43)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219~220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강덕상은 ‘재일사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가 살아온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동대지진과 관련해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전후 일본에서는 드디어 관동대지진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연구자의 대다수는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나 몇몇 사회주의자의 살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한참 동안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지요.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입니다. 이후 저의 자료집과 연구가 간행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이른바 ‘3대 학살 사건’으로 병렬해서 조선인 학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이진 어처구니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 재일조선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일본인이 다루지 않은 영역, 일본인이 피하고 싶은 영역을 일본 역사학계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재일사학’의 특징 중의 하나이겠지요.⁴⁴⁾

강덕상은 ‘일본인이 다루지 않은 영역, 일본인이 피하고 싶은 영역’의 연구가 ‘재일사학’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이는 조선의 입장에서부터 일본의 근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강덕상의 평소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덕상은 ‘일본의 길모퉁이에는 반드시 조선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도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범주와 정의에 문제가 많습니다. 데모크라시 안에 그 어디에도 3·1운동에 대한 서술은 없습니다. 3·1운동은 일본 통치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데모크라시를 주장한 사람들은 당시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데모크라시를 꺼내 들었을까, 과연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44)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244쪽.

하는 문제이지요……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대 일본의 길모퉁이에 조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근대 일본의 길모퉁이에 는 언제나 조선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⁴⁵⁾

강덕상의 ‘시무의 역사’와 ‘재일사학’은 ‘일본의 길모퉁이에는 반드시 조선 이 있다’는 말이 상징하듯이 일본의 역사학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의 연구 를 지칭한다. 강덕상은 ‘재일사학’의 사례로 박경식의 강제연행 연구, 이진희 의 광개토태왕비 연구, 강제언의 사상사 연구, 박종근의 청일전쟁 연구 등을 거론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일본인 연구자가 언급하지 않은 영역’, ‘일본 사회가 덮고 싶은 연구 분야’라고 강조했다. ‘재일사학’의 임무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조선 근대사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5. 맺음말

강덕상의 삶은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온 ‘격투’의 역사였다. 식민지 시대 황국 소년으로서 강덕상은 조국의 존재가 희미했다. 조선인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본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강요된 황국 소년, 강덕상의 모습에서 황민화 정책이라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청년기 에도 강덕상의 방황과 고뇌는 계속되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밝힐 수 없었던 차별 사회 속에서 일본식 통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재일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그토록 가혹했다.

강덕상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한 것은 ‘조선인 선언’ 이후이다. 조선인이면서 ‘나는 강덕상이다!’는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자는 감히 일본 사회에서 본명 선언이 지니는 의미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인 선언’은 강덕상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황국 소년의 어두운 그림자

45)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이규수 옮김, 앞의 책, 181~182쪽.

가 걷히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날부터 역사가 강덕상의 본격적인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조선사는 일본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거울이다’는 말로 축약되는 연구의 시작이었다. 강덕상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특히 근대사 연구의 기반을 쌓았다. 조선사연구회를 출범시키고, 일본 사회에서의 조선사 연구가 갖는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의 길모퉁이에는 반드시 조선이 있다’는 문제의식은 강덕상의 시대비판과 역사의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강덕상은 ‘재일사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제시한다. 강덕상은 ‘일본인이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역사! 가만히 두고 언급하지 않으려 한 숨겨진 역사!’의 규명이 ‘재일사학’의 본령이라고 강조한다. 일본인이 다루지 않은 영역, 일본인이 피하고 싶은 영역을 일본 역사학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조선 연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부조리한 일본 사회에서 몸소 겪어온 세월을 통해 터득한 체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강덕상은 일관되게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남북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방향성을 전망한 것이기도 하다. 강덕상은 ‘역시 민족을 되찾는다는 것! 이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한 것은 죄와 우입니다. 이것은 사상입니다. 그 뒤편에는 공통의 민족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강덕상은 ‘시무의 역사학자’로서 온 생애를 바쳤다.

연도	연보	사회상황
1931	8.5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서 장남으로 출생(호적상 생년월일은 1932.2.15)	9.18 ‘15년 전쟁’ 시작
1932		3.1 ‘만주국’ 건국 선언 5.15 ‘5·15 사건’
1934	12.30 모친(방귀달)과 함께 도일, 부친(강영원)과 미나토구(港区) 후루키와쵸(古川町)에 거주	

1935	시부야구(渋谷区) 도요와케초(豊分町) 29번지로 이사, 부친이 고물상 시작함	
1936		2.26 '2·26 사건'
1937	시부야구 쇼운지(祥雲寺) 유치원 입원	7.7 중일 전쟁 시작 12.13 '난징대학살·대강간'
1938	4월 시부야구립 린센(臨川) 심상고등소학교 입학	
1939		국민징용령 공포 조선인 노동자의 모집 개시(1942년 이후, 관알선 개시) 창씨개명령 공포(1940년 실시)
1941		12.8 태평양 전쟁 발발
1942	12.30 조부 장례를 위해 부친과 일시 귀국	
1943	부친은 고물상업, 메이지 운송점을 개업	
1944	3월 시부야구립 린센 심상고등소학교 졸업 4월 도쿄 도립 다마(多摩) 중학교 입학	조선인에 대해 징병제를 실시 조선에서 여자청신근로령 공포
1945	2월 강제 소개로 시부야구 온넨(穩田)으로 이사 5월 공습으로 가계 소실, 미야기현(宮城県) 사누마(佐沼)로 소개 5월 미야기 현립 사누마 중학교로 전학 일본 패전, 조선 해방	3.10 도쿄대공습 8.15 일본 패전 조선 식민지 해방 10월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결성 11월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건청) 결성 12월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 재일조선인·대만인의 선거권 정치
1946	8.15 부친, 해방 1주년 축하로 마신 메틸알콜로 실명 9월 모친과 도쿄로 돌아옴 9월 도쿄 도립 아오야마(青山) 중학교 전학(전후 다마(多摩) 중학교와 15중학교가 합병하여 아오야마 중학교가 됨)	신조선건국동맹(건동) 결성 건청, 건동이 합류하여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 결성(→이후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으로 개칭) 조선 성명 복구령
1947	연말 경 모친 요요기(代々木)역 앞에 음식점 개업	5.2 외국인 등록령 시행 칙령에 의해 재일조선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국적판에는 '조선'으로 기재됨 5.3 일본국 헌법 시행
1948	3월 아오야마 중학교 4년 수료 4월 도쿄 도립 아오야마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학(학제 개혁 적용)	4.24 '한신 교육 투쟁' 법률 제126호 제정 대한민국 건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1949		4월 조선인 학교 폐쇄 명령 조련에 '단체 규제령'을 적용하여 강제 해산(→1951년, '민전'으로)

1950	3월 도쿄 도립 아오야마 고등학교 졸업 4월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 사학과 입학 10월 와세다 대학 학생 운동(레드파지 반대 투쟁)으로 퇴학 처분	공직 선거법 6.25 한국전쟁 발발(→1953년, '휴전 협정 체결)
1951	4월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 취소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 사학과 재입학	재일본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결성
195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조선인, 대만인이 일본 국적을 이탈, 외국인 으로 취급 받음
1955	3월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 사학과 졸업 4월 와세다 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경제사 전수 석사과정 입학 월간 잡지 『구라이시 중국어(倉石中国語)』 편 집부 입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1957	3월 월간 잡지 『구라이시 중국어』 퇴사	
1958	역사학 연구회 회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귀국 운동 개 시(1959년, 북일 사이에 귀환협정, 같은 해 부터 니가타[新潟]로부터 제1선 출항) 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
1960	3월 와세다 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석사과 정 수료 4월 메이지 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사학 전 공 동양사 전수 박사과정 입학 7.11 문양자(文良子)와 결혼 7.13 동생(강덕훈) 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으로 귀국	
1961	1.27 부친(강영원) 사거, 향년 48세	
1963	3월 메이지 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사학 전 공 동양사 박사과정 단위 취득 만기 퇴학 조선사 연구회 간사(1966년까지) * 『現代史資料 6 関東大震災と朝鮮人』(みず ず書房)	
1965	『現代史資料』로 제13회 기쿠치 간(菊池寛) 상 공동 수상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기본 계약에 관한 조약 (한일조약) 체결
1966	* 『現代史資料 25 朝鮮 1 3・1運動 1』(みず ず書房)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와 대우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한일 법적 지위 협정) 발표
1967	* 『現代史資料 26 朝鮮 2 3・1運動 2』(みず ず書房)	

1968	4월 도쿄 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연구위탁	2.2 김희로(金嬉老) 사건 4.17 도쿄도지사, 조선대학교를 각종 학교로 인가
1969		송두회(宋斗會), 일본 국적 확인 소송 제소(→1980년, 패소 결정)
1970	* 『現代史資料 27 朝鮮 3 獨立運動 1』(みずず書房)	12.8 박종석(朴鐘碩), 히타치(日立) 취직 차별 소송(→1974년, 승소 판결)
1971	4월 와코(和光) 대학 일반교육 강사(1993년 3월까지)	
1972	* 『現代史資料 28 朝鮮 4 獨立運動2』(みずず書房) * 『現代史資料 29 朝鮮 5 共產主義運動1』(みずず書房) * 『朝鮮獨立運動の血史 1』(翻訳, 平凡社東洋文庫) * 『朝鮮獨立運動の血史 2』(翻訳, 平凡社東洋文庫)	
1973	4월 메이지 대학 문학부 겸임강사(2002년 3월까지)	김대중이 한국중앙정보부(KCIA)에 의해 도쿄의 호텔, 그랜드 팔레스에서 납치 당함
1975	구니타치시(国立市) 시민 연속 역사 강좌 강사 * 『関東大震災』(中央公論社) 12월 『関東大震災』스다이(駿台) 사학회 선장(選奨) 수상	사할린 잔류자 귀환 청구 재판 제소(→1989년, 취소로 종료) 10.3 최창화(崔昌華) 목사, 한국성을 일본어로 읽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NHK를 제소(1엔 재판)
1976	*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 2』(みずず書房)	김경득(金敬得), 사법 시험에 합격하지만 사법연수소에 입소 불가능(→1977년, 최고재판소 결정에 의해 최초의 사법수습생이 됨)
1977	4월 신슈(信州) 대학 인문학부 외국인 강사(1987년 3월까지) 10월 도쿄 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강사(1978년 3월까지) 11월 『現代史資料』로 마이니치(毎日) 출판문화상 특별상 수상	국제 인권 규약에 일본이 가입→주택·금융공고(公庫)·공영 주택·공단 주택 등에 국적 조항 철폐
1978	시부야구 구민 연속 역사 강좌 강사	
1979	4월 가큐수인(学習院) 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1993년 3월까지)	김현균(金鉉鈞), 국민연금 지불 요구를 제소(→1983년,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사회보험청에 국민연금 지불을 명령)
1980		9.10 한중석(韓宗碩), 외국인 등록 갱신 시에 지문 날인을 거부(東京都新宿区役所)

1981	다치카와시(立川市) 시민 연속 역사 강좌 강사 4월 호세이(法政)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연구 과 겸임강사(1983년 3월까지) 12.2 모친(방귀달) 사거, 향년 70세	
1982	2월 구니타치시 시민연속 역사 강좌 강사 다나시(田無市) 시민 연속 역사 강좌 강사 4월 호세이 대학 경제학부 겸임강사(1984년 3월까지) * 『方貴達オモニの思い出』(私家版)	1.1 일본 정부 비준(1976년 6월 21일)의 난민 조약 발효, 특례 영주 제도 실시, 국민 연금의 국적 조항 철폐(단, 35세 이상은 미적용) 9.1 국공립 대학 외국인 교원 임용법 시행 (단, 입기제)
1983	* 『獨立運動の群像』(青木書店)	
1984	조선민족운동사 연구회 회원 4월 쓰다주쿠(津田塾) 대학 강사(1984년 9월 까지)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사회학부 강사(1985 년 3월까지)	부계 혈동주의로부터 부모 양계 혈동주의로 국적법 개정 제1회 원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1985	다나시 시민 연속 역사 강좌 강사 와세다 대학 제일 한국·조선인 동창회 회장 (1987년까지) 4월 호세이 대학 제2교양학부 겸임강사 (1989년 월까지) 요코하마(横浜) 국립대학 경제학부 강사 (1986년 3월까지) 오차노미즈(お茶の水) 여자대학 교육학부 강 사(1986년 3월까지) 치바(千葉) 대학 문학부 강사(1987년 3월까 지)릿쿄(立教) 대학 일반교육부 강사(1986년 3월까지)	1.1 일본 개정 국적법시 행
1986	아다치구(足立区) 구민 연속 역사 강좌 강사 한국독립기념관 부속연구소 연구원 3월 청구 문화상 수상 4월 시코쿠(四国) 학원대학 문학부 강사 (1989년 3월까지) 4월 히토쓰바시 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강사(1988년 3월까지)	4.1 국민 건강 보험법의 국적 조항 철폐
1987	4월 히토쓰바시 대학 경제학부 강사(1988년 3월까지) 4월 호세이 대학 경제학부 겸임강사(1989년 3월까지) 8월 한국독립기념관 기념 대통령패 수상 * 『ソウル城下に漢江は流れる』(共訳, 平凡社)	

1988	4월 와세다 대학 사회과학연구과 특별연구원(1993년 3월까지) 4월 히토쓰바시 대학 사회학부 강사(1989년 3월까지) 4월 신슈 대학 인문학부 외국인 강사(1989년 3월까지)	9.17 서울 올림픽 개최, 159개국 8,456명의 선수가 참가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한국 영주 귀국 개시
1989	4월 히토쓰바시 대학 사회학부 교수 4월 오사카(大阪) 외국어 대학 강사(1996년 3월까지)	배건일(裴健一) 입거 차별 재판 제소(→1993년, 승소 판결) 서일본흥산(西日本興産), 우토로 지구 주민에 대해 토지 명도 청구 제소(→2000년, 최고재판소에서 주민 패소 확정)
1990		김정규(金正圭) 등의 참정권 소송 제소(→1995년, 최고재판소 판결로 패소되었지만 외국인 참정권은 입법으로 가능하게 됨)
1991	와세다 대학 재일 한국·조선인 동창회 회장(1993년까지)	한일 법적 지위 협정에 기초한 협의 결과에 관한 각서 이학래(李鶴來) 등 BC급 전범 소송 제소(→1999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확정) 9.18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N 동시 가맹 11.1 협정 영주와 특례 영주를 하나로 만든 특별 영주 제도 개시
1992	11월 문화센터 아리랑 관장(2017년 5월까지)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에 대한 지문 날인 제도 폐지(→1999년, 지문 날인 제도 전면 폐지)
1993	* 『戦後補償問題資料集 第8集』(戦後補償問題研究会)	1.8 개정 외국인 등록법 시행 4.5 송신도(宋神道), 종군 '위안부' 도쿄 지방 재판소에 제소(→2003년 3월,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확정)
1994	4월 게이센(惠泉) 여학원대학 강사(1998년 3월까지) 민단 민족대학 강사로 전국 주요 도시의 시민 강좌에서 한일관계사 강의 담당(1999년까지)	정향균(鄭香均), 동경도 관리직 재판 제소(→1997년 도쿄 고등재판소 승소, 2005년 최고재판소 패소) 4.20 민단이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으로 개칭
1995	3월 히토쓰바시 대학 정년 퇴직 4월 시가현립(滋賀県立) 대학 인간문화학부 교수	1.17 한신(阪神)·히메지(淡路) 대지진으로 131명의 동포가 희생 2.28 최고재판소 '영주자 등의 지방 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
1996		5.13 가와사키시(川崎市)가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정령(政令) 지정 도시에서 처음으로 직원 채용 시험의 국적 조항 철폐
1997	* 『朝鮮人学徒出陣-もうひとつのわだつみのこえ』(岩波書店)	
1998	4월 오사카(大阪) 대학 강사(1999년 3월까지)	

2000		공명당과 자민당 양당, '지방 참정권 법안'을 국회에 제출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2001	4월 신유 대학 강사(2002년 3월까지)	정부 여당, '국적 제출 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 도지사, '3국인' 발언
2002	3월 시가 현립 대학 정년 퇴직 4월 시가 현립 대학 명예교수 한국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강사 * 『呂運亨評伝 1 朝鮮3・1獨立運動』(新幹社)	제일 코리언 변호사 협회 설립 5.31 2002년 FIFA 월드컵(한일 공동 개최) 9.17 고이즈미(小泉) 수상 방북, 조일 평양 선언 채택, 일본인 납치를 인정
2003	* 『関東大震災 虐殺の記憶』(靑丘文化社)	
2005	11.24 제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 (2017년 11월까지) * 『呂運亨評伝 2 上海臨時政府』(新幹社)	1.26 정향균, 도쿄도 외국적 직원의 관리직 승임 시험 거부 소송에,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11.24 제일한인역사자료관 개설
2006		5.17 한국 민단과 조총련이 화해를 향한 6항목 합의, 공동 성명 발표 7.6 한국 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7.5)를 이유로 조총련과의 화해를 향한 공동 성명의 백지 철회를 발표
2007	* 『錦絵の中の朝鮮と中国』(岩波書店)	
2010		5.10 한일 지식인 214명L 서울과 도쿄에서 '한국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 성명을 발표
2011		3.11 동일본대지진
2012		4.11 한국 공직 선거법 개정(2009년 2월)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해외 영주자가 처음으로 참가 7.9 외국인 등록법 폐지 주민 기본 대장 제도(주민표) 적용 12.19 한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해외 영주자가 처음으로 참가
2013		10.7 교토(京都) 지방재판소, 민족학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특회(在特会)에 배상금(1226만엔)과 학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서의 가두 활동 금지를 명령
2014		8.29 UN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인종 차별 철폐 조약과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 일본 정부에 권고

2015		12.28 한일 외상,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발표 (2016년 '화해 치유 재단' 설치, 2019년 해산)
2016	투병 생활	1.15 오사카(大阪) 시의회, 전국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의 대처에 관한 조례' 제정 5.16 고마군(高麗郡) 건군 1300주년(월일은 음력) 6.3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분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처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5월 24일 성립)
2017	투병 생활 제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 교대 문화센터 아리랑 관장 교대	9.1 고이케(小池) 도쿄 도지사, 관동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 송부를 중지 9.20 천황과 황후가 처음으로 고마신사(高麗神社, 埼玉県日高市)에 참배 10.31 한일이 공동으로 신청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17세기~19세기 한일 간 평화 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선정
2018	투병 생활 * 『呂運亨評伝 3 中国国民革命の友として』 (新幹社)	2.9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 아이스하키 여자 남북 공동팀 '코리아' 결성 4.27 남북 수뇌 회담(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원장), '판문점 선언'(중전 비핵화를 추구함) 6.12 북미 수뇌 회담(김정은 국무위원장 위 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 싱가포르) 10.30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한국 대법원 판결로 원고(강제 징용 피해자 측)가 승소
2019	* 『呂運亨評伝 4 日帝末期暗黒時代の灯として』(新幹社)	2.8 2·8독립 선언 100주년 2.27~2.28 북미 수뇌 회담(김정은 국무위원장 위 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 베트남) 3.1 3·1독립운동100주년 6.30 북미 수뇌 회담(김정은 국무위원장 위 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 판문점), 현직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북한 입경 12.16 가와사키시 차별이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 공포
2020	한국 독립기념관 제16회 학술상 수상 * 『関東大震災』(新幹社)	
2021	6.12 서거	

■ 참고문헌

-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 이규수 옮김, 『시무(時務)의 역사학자 강덕상』, 어문학사, 2021.
- 姜徳相, 「つくりだされた流言」, 『歴史評論』 157, 1963.
- _____,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実態」, 『歴史学研究』 278, 1963.
- _____, 「大震災下の朝鮮人被害者数の調査」, 『労働運動史研究』 37, 1963.
- _____, 「三・一運動における『民族代表』と朝鮮人民」, 『思想』 537, 1969.
- _____, 「日本の朝鮮支配と三・一運動」, 『岩波講座・世界歴史』 25, 岩波書店, 1970.
- _____, 「関東大震災下『朝鮮人暴動流言』について」, 『歴史評論』 281, 1973.
- _____, 『関東大震災』, 中公新書, 1975.
- _____, 「関東大震災—もう一つの虐殺—習志野騎兵連隊における朝鮮人虐殺」, 『季刊三千里』 23, 1980.
- _____, 『朝鮮獨立運動の群像—啓蒙運動から三・一運動へ』, 青木書店, 1984.
- _____, 「三大テロ史観について」,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関東大震災70周年記念集会の記録』, 日本経済評論社, 1994.
- _____,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일본 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 1999.
- _____, 『呂運亨評傳 (1~4)』, 新幹社, 2002~2019.
- _____, 『新版 関東大震災—虐殺の記憶』, 青丘文化社, 2003.
- 今井清一, 「大震災下の諸事件の位置づけ」, 『労働運動史研究』 37, 1963.
- 李達憲, 「日本に於ける朝鮮史研究についての所感」, 『歴史学研究』 特集号, 1953.
- 梶村秀樹, 「日本における朝鮮研究」, 『アジア経済』 10-6・7合併号, 1969.
- _____, 『朝鮮現代史の手引』, 勁草書房, 1981.
- 朴慶植, 「三・一獨立運動研究の諸問題」, 『思想』 556, 1970.
- _____, 『朝鮮三・一獨立運動』, 平凡社, 1976.
- 松尾章一, 「関東大震災の歴史研究の成果と課題」, 『法政大学多摩論集』 9, 1993.
- 松尾尊兌,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暴動流言に関する二・三の問題」, 『朝鮮研究』 33, 1964.
- 塩田庄兵衛, 「関東大震災と亀戸事件」, 『歴史評論』 158, 1963.
- 朝鮮に関する研究資料編集委員会編,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 (朝鮮に関する研究資料 第9集)』, 朝鮮大学校, 1963.
- 『現代史資料 朝鮮(1~6)』, みすず書房, 1966~1976.

A Researcher of the Mission of the Times(時務), Kang Deok-sang(姜德相)'s Research of Korean History

Yi, Gyu-soo*

In this article, the trajectory of life of Korean historian Kang Deok-sang (1931-2021) was reviewed. Kang Deok-sang laid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Korean history in Japan, especially modern history. It presented the true meaning and direction of Korean history research in Japan, including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Modern History Research Association(朝鮮近代史料研究會)> based on the Friendship Association(友邦協會). This was his researching path as a historian of the mission of the times(時務).

Kang Deok-sang's life was the 'fighting history' as a Korean in Japan. In colonial-era as a colonized boy, Kang Deok-sang had a faint perception on his country. Through the appearance of a colonized boy, Kang Deok-sang, who has Korean's mind but is forced to fulfill his loyalty to Japan,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how imperial citizenship's policy could distort human mind. Kang Deok-sang's wandering and anguish continued even in his yout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people in Japan were so harsh.

It was after the 'Korean Declaration' that Kang Deok-sang restored his national identity. After entering the graduate school, Kang Deok-sang devoted himself to researching modern history. He played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History Research Association(朝鮮史研究會)>, a national

* Professor,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Hitotsubashi University

academic society for Korean history research in Japan. In the field of personal research, he tracked the intrinsic development of Korean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related to economic history, and also drew attention from academia through the debate on national representation in the study of the 3.1 movements. In this process, Kang Deok-sang shared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of the history of the Mission of the Times. It led to the study of the massacre of Koreans in the Great Kanto Earthquake, a representative study of Gang Deok-sang.

Kang Deok-sang presented a new field of study called ‘Korean history in Japan(在日史學)’. He emphasizes that the discovery of hidden history which the Japanese did not mention is the main body of ‘Korean history in Japan.’ It is important to raise a problem that the Japanese did not deal with and they wanted to avoid. This also presents the problems of recent Japanese research on Korea and future tasks.’

Kang Deok-sang consiste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people. It predicts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and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Under this awareness, a lingering study was conducted. The ultimate purpose of Kang Deok-sang’s writing of critical biography of Yeo Woon-hyung is that only through a proper evaluation of Yeo Woon-hyung, psychological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s national consciousness is possible. It suggested the prospect that Korean’s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could only begin through a re-evaluation of Yeo Woon-hyung’s ideas. Kang Deok-sang has devoted his entire life as a researcher of the mission of the times.

Key words : Kang Deok Sang, History of Japan, Great Kanto Earthquake,
Yeo Woon-hyung, History Study of the Mission of the Times(時務)